

# 전북은행 '캄보디아 사태' 후 반년째 대책 없이 수수방관

지난해 프린스·후이원 거래 다수

프린스 예치이자 전북은행 '절반' 7억  
후속대책 없어 지역사회 비판 확산  
이 대통령 전담반 지사…수사 가속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강금, 살인, 보이스피싱, 금융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전북은행이 이들 은행간 거래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전북은행은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지 반 년이 흘렀지만 자구책이나 별 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어 금융권은 물론 지역사회의 거센 비난을 사고 있다.

직접 범죄단지를 운영해온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과 금융 거래를 해온 국내 은행은 5곳으로 금융거래액은 총 2146억 8천600만원에 달했는데 전북은행이 다

수를 차지했다.

강민국 국회의원실(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금융업권 캄보디아 프린스 및 후이원그룹 거래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까지 5개 은행이 프린

스그룹과, 1개 은행이 후이원 그룹과 각각 금융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5개 국내 은행 가운데는 전북 향토은행인 전북은행이 거래 건수 51건, 거래 금액 총 1천25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프린스 그룹이 정기성 예금을 예치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의 순이다.

이에 대해 전북은행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 아직 은행차원의 후속대책이나 지시사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 스캠 사태 등과 관련, 전담반을 꾸려 발본색원의 지시를 내린만큼 향후 수사결과에 귀

추가 쏠리고 있다.

/장정철 기자

## 李대통령 "이혜훈 해명 들어봐야…아직 결정 못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사  
“국민 판단하고 결정하고 싶었다  
청문회 봉쇄돼 아쉽다” 보이콧 직격  
“한쪽 주장만으론 판단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 "본인 해명을 들어봐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은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무산된 이혜훈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

다.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다. 저로서도 아쉽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쉬운 건 본인 얘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다"며 "그 기회마저 봉쇄돼서 본인도 아쉽겠지만 저도 참 아쉽다"며 청문회 보이콧에 직격했다. 이어 "재판을 하다보면 원고측 유능한 대리인이 써놓은 거 읽어보면 백프로 그 사람 말이 맞고, 피고측 유능한 대리인 말을 봐도 백프로 맞다"며 "그래서 두 사람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판단이 선

다"며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저는 저 자신에 관한 왜곡된 가짜 이야기를 많이 들어 봐서 그런 신념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의대의 인사검증 부실'에 대해서 "그분이 보좌관에게 갑질을 한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면서 "유능한 분이라고 판단되고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다섯 번을 받아서 세 번이나 당선되고 아무런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던 분 아니냐"고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이 대통령이 이같은 입장에 따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실제 열리게 될지와 인사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임명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김영록기자



혁신도시 약취 협약

도·전주·김제·완주 '공동대응'

전북도는 21일 도청에서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약취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t;사진=완주군&gt;

## 道-3개 시군, 혁신도시 약취 해결 행정경계 넘어 '한뜻'

전북도·전주시·김제시·완주군

340억 중 지방비 102억 분담 협약

김제 용지면 축사 매입·철거 추진

'복합약취 절반 감소' 1단계 연장선

관리지역에 남아있는 현업축사 27농가를 매입·철거하는 사업의 지방비 분담이다.

총사업비 340억 원 가운데 국비 238억 원(70%)을 제외한 지방비 102억 원을 전북자치도 30%, 김제시 50%, 전주시와 완주군이 각 10%씩 나눠 부담한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이며, 토지매입비 244억 원과 축사철거비 96억 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협약기관 간 협의·조정과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건의, 사업 추진성과 점검 및 평가를 맡는다. 김제시는 사업 시행과 추진상황 보고, 약취배출시설 관리 강화 및 약취저감대책 추진을 담당한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지방비 분담과 함께 약취저감 관련 연계사업에 협력한다.

이번 협약은 사업 대상지역인 김제시와 혁신도시가 위치한 전주시, 완주군이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역 환경 현안에 공동 대응한다는 점

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의 골자는 김제시 용지면 특별

금사업법 개정으로 매입 기한이 4년 연장되면서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대상 지역은 신암, 신릉, 비룡마을 일원으로, 축사 부지 8만 9,238㎡와 축사 건물 3만 8,679㎡가 철거 대상이다.

1단계 사업 추진 결과 약취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용지면 일대 복합약취 농도는 2021년 15.8배에서 2025년 8.0배로 약 50% 줄었다.

그러나 연평균 20건 이상의 민원이 여전히 발생하는 등 혁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잔여 축사 전량 매입이 완료돼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게 전북도의 판단이다.

도는 축사 매입과 함께 종합적인 약취 관리 대책도 추진한다.

올해 용지면 일대를 약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축사와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結  
實  
蒼  
來 지금까지 맷어온 열매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연다 결  
실  
창

2026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안군

結  
實  
蒼  
來 결  
실  
창 지금까지 맷어온 열매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연다 결  
실  
창

# 전북도, K-컬쳐 연계 '문화올림픽' 유치 전략 시동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 회의 개최  
 문화분야 전문가 7인 라운드테이블  
 전북 고유 자원 결합 개·폐회식  
 문화·관광 연계 프로그램 등 제안

전북특별자치도는 21일 전주하게올림픽·페럴림픽 유치를 위한 문화분야 전략 마련의 일환으로 전주하게올림픽 유치 라운드테이블 전문가 첫 번째 회의(문화분야)를 열었다.

21일 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청동북카페에서 열렸으며 도내 문화기획자 등 문화분야 전문가 7명이 참석, '문화올림픽' 실현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회의에는 김성혁, 김지훈, 박영준, 안선우, 이왕수, 이윤주, 이재원 등 문화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전북의 문화적 강

점과 K-컬처를 연계한 올림픽 문화콘텐츠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2036 전주하게올림픽·페럴림픽 유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대회의 비전과 컨셉, 현재까지의 유치 추진 경과, 향후 유치 전략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이어 K-컬쳐 연계 문화올림픽 개최방안을 주제로 논의사항별 집중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전북 고유의 문화자산과 K-컬처를 결합한 올림픽 개·폐회식 연출 방안 ▲대회 기간 전북 전역에서 펼쳐질 문화행사 및 문화관광 연계 프로그램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한 전북도 및 정부 차원의 준비과제 등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또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정체성 강화, 지역 문화예술인의 참여 확대,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창



도는 21일 전주올림픽·페럴림픽 유치 라운드테이블 문화분야 전문가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출발방안 등도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문화분야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은 전북이 지향하는 K-컬처 기반 문화올림픽의 방향성을

안호영 "남원 KAIST AI공공의료캠퍼스 대 유치"

"세계 최초 AI공공의료  
 연구모델 구축할 것"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추진중인 남원공공의대를 KAIST와 결합한 AI공공의료 대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AIST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의 AI공공의료 연구모델을 전북 남원에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원 공공의과대학을 기반으로, KAIST의 연구 역량을 결합해 AI를 공공의료 체계의 기본 인프라로 연구·실증하는 국가 연구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의료AI, 의과학, 의료데이터, 공공의료 시스템을 통합 연구하고, 공공의료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는 연구 중심 캠퍼스가 핵심이다.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는 의료 AI 연구기관, 스타트업, 기업 연구소가 함께 상주하는 연구·창업 복합형 캠퍼스로 조성된다. 이를 통해 AI 정밀 일차의료, 역학 감시, 정신건강·돌봄 AI 등 연구 성과가 사업화와 산업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 산업 성장을 함께 이끈다는 구상이다.

안 의원은 또 "덕유산·지리산 권역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은 의료·돌봄 산업과 건강·휴양·관광 산업이 결합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남원을 중심으로 한 KAIST 캠퍼스와 공공의대가 동부권 전체 경제를 살리는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 공공의대가 임상과 교육을 담당하고, KAIST 남원 AI공공의료 캠퍼스는 AI 기반 의료 연구와 의료 시스템 설계를 맡아, 현장의 문제를 연구로 연결하고 연구 성과를 다시 공공의료 현장에서 검증하는 구조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안 의원은 "KAIST 남원 AI공공의



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은 도의회에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공공의대를 KAIST와 결합한 AI공공의료 대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료캠퍼스는 공공의료의 미래를 연구로 설계하는 연구 캠퍼스"라며 "AI를 개별 기술이 아닌 의료 시스템 전체의 구조로 연구하는 점에서 세계 최초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는 의료 AI 연구기관, 스타트업, 기업 연구소가 함께 상주하는 연구·창업 복합형 캠퍼스로 조성된다. 이를 통해 AI 정밀 일차의료, 역학 감시, 정신건강·돌봄 AI 등 연구 성과가 사업화와 산업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 산업 성장을 함께 이끈다는 구상이다.

안 의원은 또 "덕유산·지리산 권역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은 의료·돌봄 산업과 건강·휴양·관광 산업이 결합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남원을 중심으로 한 KAIST 캠퍼스와 공공의대가 동부권 전체 경제를 살리는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 공공의대가 임상과 교육을 담당하고, KAIST 남원 AI공공의료 캠퍼스는 AI 기반 의료 연구와 의료 시스템 설계를 맡아, 현장의 문제를 연구로 연결하고 연구 성과를 다시 공공의료 현장에서 검증하는 구조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안 의원은 "전북에서 연구되고 현장에서 검증된 AI 의료 모델을 국가 표준으로 정리해 산업과 수출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록기자

## 김종훈 부지사, 설 앞두고 전북도 서울장학숙 현장 점검

전기·소방 등 설비 운영 상태 확인  
 급식 위생관리·식단 균형 점검  
 청운관 입사생 환경 살피고 격려

전북도는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을 방문, 주요 시설물과 입사생 급식 상태를 점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명절 기간을 앞두고 장학숙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입사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지사는 장학숙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주요 시설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전기·기계·소방·통신 등 각종 설비의 운영 상태를 점검했다. 특히 중대재해와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이행 여부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상황, 위기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등을 꼼꼼히 살폈다.

김종훈 부지사는 이날 "서울장학숙은 도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

하여 급식시설을 찾아 위생 관리 상태와 식단 구성의 영양 균형을 점검하며,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급식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가고시와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준비 중인 청운관 입사생들을 만나 면학 환경을 살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서울장학숙은 현재 도내 출신 대학생과 수험생들이 생활하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인재 육성 지원 시설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급식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수도권 생활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종합 검토해 향후 시설 관리와 운영 개선에 반영하고, 장학숙의 시설 환경과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입사생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김종훈 부지사는 이날 "서울장학숙은 도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



전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서초 전북자치도 서울장학숙을 방문해 주요 시설과 입사생 급식 상태를 점검했다고 21일 밝혔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시설 안전과 급식 관리는 학생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예방 중심의 관리와 세심한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부안군 공고 제2026-165호

## 부안군 성장관리계획(안)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

부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 제70조의1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2일

## 부안군 수

### 1. 주요내용

#### 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목적

- 개발압력이 높아지는 지역의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 기반시설 확충 및 개별 건축 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비시가지역의 합리적 발전과 능률적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의 미래 성장방향을 예측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

#### 나.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구분	개소(개)	면적(㏊)	구성비(%)
총계	398	88,557.003	100.0
일반형	361	85,054.536	96.1
주거형	15	1,590.724	1.8
복합형	6	453.783	0.5
산업형	16	1,457.990	1.6

#### 다.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 기반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계획에 관한 사항
- 환경관리 및 재해방지계획,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등

####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1. 23.(금) ~ 2026. 2. 5.(목)
- 의견 제출 방법 :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작성 후 제출

#### 3.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부안군청 새만금도시과(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 4. 관계도서

- 계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5. 기타 사항

- 열람 자료는 최종 결정 고시된 사항이 아니며,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새만금도시과 도시계획팀(☎063-580-470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준병, '맹견 사육허가 개선법' 대표 발의

출마희망자 권리당원 한해 신청  
 심사 없이 등록 끝 공천 불이익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제9회 전국지방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서류 접수를 받는다.

이번 접수는 지난 19일 선출직평가 위 활동 종료에 따른 후속절차로 서류 접수는 23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초단체장, 광역의원(비례포함), 기초의원(비례 포함) 희망자 대상이다.



현장 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맹견 사육허가가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집중돼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기 위해 맹견과 함께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는 등 행정 절진성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맹견 사육허가 제도의 실효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높이고자 했다. 개정안은 △고령·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고령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종성화 수술이나 기질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이를 요구하고 기질평가 비용 역시 전액 소유자 부담으로 하면서 제도에 대한 반발과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맹견에 대해서는 기질평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호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또한 △맹견 사육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조정해 주민 생활권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허가를 받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제도의 엄정화와 신뢰성을 강화했다.

윤 의원은 "책임 있는 보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기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채 규제만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록기자



# 전문건설協 전북도회, 국토부장관에게 “호소”

## 7만 사업자들 “전문 건설업생존권” 위협 건설산업 정상화 촉구

최근 전국 7만여 전문건설사업자들은 현재 전문건설업생존권 위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전문건설사업자들은 전문건설업 생존권 수호 위한 텐원서를 작성해 포함시킬 예정이다. 지난 19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임근홍 회장은 제4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제41회 정기총회 주요 목적에는 전문건설인△생존권수사△생존권수호△권익보호 등을 담고 있다.

임근홍 전문건설 전북자치도회장은

설업 생존권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며 건설산업 정상화를 촉구”했다.

또 총회에 참석한 도내 전문건설인들은 “건설산업 정상화 및 전문건설업 업역 보호를 위해 한목소리로 생존권 수호”를 외쳤다.

임 회장은 “성실 시공 주체인 전문건설인들은 현장의 최일선에서 오늘도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며 건설산업의 중심을 지켜가고 있다”며 “2026년 전문공사는 전문업체가 수행해야 한다는 굳건한 원칙 아래 우리 도회는 중앙회 윤학수 회장님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생산업체에 정상화에 협회 사활을 걸고 전문건설 권익보호와 위상 정립을 위해 주도적으로 앞장 서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협회는 “도내 전문건설인들과 영세 전문건설업체 생존권 수호 위한 건설업 상호시장 폐지에 대한 강력한 의사와



의지를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설업체가 무차별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돼 영세 전문업체는 존립기반이 상실되고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김영태 기자

# 전북도·경진원 ‘2026 전북형 수출바우처’ 기업 모집

## 제조·유통 중소기업, 수출 관련 바우처 형태 지원

전북도내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이 강화된다.

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오는 30일까지 ‘2026 전북형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전북형 수출바우처’는 수출 규모에 따라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 지원 사업이다.

특히 ‘전북형 수출바우처’는 지난해

25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총 1525만달러 상당 실적과 1354만달러 계약 성과를 거뒀다.

‘2026 전북형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 제조·유통(도내 제품 수출) 중소기업이다. 아울러 전년도 직수출 실적에 따라 △수출선보(50만불 미만) 기업은 최대 1300만원 △수출주력(50만불 이상) 기업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진원은 수출 장벽 해소 위한 ‘2026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참여 기업도 모집 중이다.

참여기업에게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

팅 비용 등을 기업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모집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더불어 올해 경진원은 ‘전담 코디네이터’ 서비스를 운영해 △준비 △집행 △증빙 단계까지 밀착 지원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0일 오후 5시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jbexport.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 또는 경진원 수출전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 국립종자원, 신품종보호 출원 1만4천건 넘어

## 14,284 품종…기후변화 바이오·소재 영역 확장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은 식물 신품종보호제도가 1997년 12월 도입된 이래 2025년 12월 31일까지 547작물 14,284 품종이 출원됐다.

이 중 442개 작물 10,792품종이 보호 등록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80개 회원국 중 8위 수준이다.

식물 신품종보호제도는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 육성자의 권리로 보호함으로써, 우수품종개발을 촉진, 양질의 종자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 생산성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출원은 115작물 525품종, 보호등록은 93작물 436품종

이다. 출원 비중은 화훼류가 245품종(47%)으로 가장 많았고, 채소류 137품종(26%), 과수류 68품종(13%), 식량작물 48품종(9%)이며, 출원이 가장 많았던 작물은 장미(58품종), 국화(39), 고추(24), 배추(22), 복숭아(17), 벼(17) 순이다.

보스톤고사리, 대마 등 8개 작물이 국내에 처음으로 출원됐으며 최근 반려식물, 생활원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출원 작물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칸나비노이드 함량이 높은 대마 신품종이 신규 출원되고, 바이오 섬유소재로 사용되는 케나프(양파) 신품종이 출원되는 등 품종보호제도가 농업 생산 중심에서 바이오·소재 산업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과수 분야에서는 블루베리와 포도의 외국품종 출원이 예년에 비해 증가했다. 최근 사인머스켓, 블랙사파이어 등 국내에 품종보호권이 설정되지 않은 외국 품종의 재배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해외



육종가들이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안정화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이외 가뭄에 강하고 척박 토양에 잘 자라는 벼, 수직농장 재배에 적합한 고추 등 기후변화와 미래 농업환경에 대응한 품종의 출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정소민 기자

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국립종자적인 품종 관리를 위해 국내 출원을 강화한 토양으로 분석된다.

국립종자원은 최근 출원 다양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재배심사 심사시설 구축 및 특수·기능성 품종에 대한 심사기준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품종보호제도의 심사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지역 8개 기업 혁신제품 공공시장 진출

## 에너지안전AI 분야 ‘혁신 기술·공공현장 해법’ 인정

전북지방조달청(청장 김향수)은 기술혁신을 통해 공공문제 해결에 기여할 도내 기업 8개사 제품이 조달청 신규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은 ▲수에너지 주식회사의 ‘상변화물질 리사이클링 탱크가 구비된 지열히트펌프’ ▲루미켐 주식회사의 ‘탄소섬유 하우징 적용된 LED보안등’ ▲주식회사 와파이아이아이의 ‘3D 라이다를 활용한 AI 안전 관리 플랫폼’ ▲씨에스 주식회사의 ‘도로 결빙 방지 시스템’ ▲신성이엔에스의 ‘거점식 축산차량 블로워 회전 분

무 소독 시스템’ ▲(주)썬더테크놀로지의 ‘장애에도 중단없는 방송이 되는 지능형 네트워크방송시스템’ ▲주식회사 프라임케미칼의 ‘초고온의 화재에 견디는 산업용 내화피복재’ ▲(주)성원안전의 ‘낙석방지 와이어넷 구조물’ 등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간 수의계약을 포함해 시범구매, 우선구매, 구매면책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최근에는 R&D 연계, 해외실증, ODA 등 후속지원 범위도 대폭 확대되고 있다.

김향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이번 혁신제품 지정은 지역 기업의 기술력이 공공문제 해결 수단으로 공식 인정 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혁신기술이 실제 공공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실증과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TP, 2026년 위드 토크데이 개최

## 미래성장동력 확보

로 구성됐다.

또 공공의 본질과 책임을 다하는 임직원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잡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기회를 찾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북TP는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 경쟁력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며,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현장 중심의 고민이 더해져, 특별자치도 시대에 걸맞은 강한 경제 전북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을 맞아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가는 전북테크노파크를 비롯한 전북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바이오융합진흥원 등 7개 도내 출연기관 임직원들이 지역산업 활성화와 기업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써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현장에서 직접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머리 산업인 방위산업과 반도체산업 등에 대한 산업육성전략을 공유하고, 기업지원 성과제고를 위한 실질적 전략에 관한 다양한 질의가 이루어져 전북의 구체적 산업생태계를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

/정소민 기자

# “중소기업이 함께 ‘모두의 성장’을 구현한다!”

##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

되고 기업 생태계 전반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등에 따른 수직형 납품구조의 변동,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AI·플랫폼 등 신산업 대전환 같은 환경 변화는 기존 상생협력 정책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을 위해, 경제외교 성과의 직접적 공유·확산, 대→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 상생 생태계 확장의 3대 전략을 마련했다.

지난해 국민 모두의 노력에 힘입어 한·미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고, UAE 순방, APEC 등에서 잇따라 팔목할 경제성과도 참출됐다.

이러한 경제외교 성과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와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로, 이 같은 성과는 특정 기업을 넘어 중소·벤처기업까지 확산

/정소민 기자

# 전북대학교병원 ‘조달이용 우수기관’ 선정

## 공공조달 제도 적극 활용 공로

정됐다.

유공 직원으로 선정된 김혜경 직원은 조달 관련 실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관련 제도 이해도 제고와 업무 개선 노력을 통해 조직 내 조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향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전북대학교병원은 공공조달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조달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달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전북은행 ‘JB 1·2·3 정기예금 특별금리 이벤트’ 시행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준원)이 ‘JB 1·2·3 정기예금’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최고 연 3.1%의 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오는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JB 1·2·3 정기예금’ 가입 시 기본 금리 연 2.60%에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연 0.5%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이 금리 혜택을 중심으로 예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어 전북은행 이용 고객들에게 예금자산 운용에 혜택을 드리고자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상품 가입 없이, 첫 거래 여부와 마케팅

/정소민 기자

# ‘2026년 전북형 늘봄학교’ 새학기 본격 추진

## 전북교육청, 초등 3학년 방과후 이용권 도입 온동네 돌봄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모든 아이가 꿈을 키우고 성장하는 ‘2026. 전북형 늘봄학교’를 3월 새학기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북형 늘봄학교는 초등 저학년 돌봄 공백 해소와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학교 안과 학교 밖을 연계한 통합 돌봄·교육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먼저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매일 2차시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한다. 놀이·체험·기초학습·정서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학생 발달 단계에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해 방과후에도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간 50만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해당 이용권은 학교 안 선택형(교육) 프로그램의 수강료와 교재·재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늘봄학교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학교 안 늘봄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교 밖 늘봄은 보다 내실화한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시설 등 209

개 학교 밖 늘봄기관과 연계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주·군산·고창 등에서는 ‘온동네 돌봄·교育센터(舊 거점형 늘봄센터)’를 운영해 지역 단위 공동 대응 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지자체·지역기관이 함께하는 늘봄 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학교 늘봄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해 개별 학생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학교별 여건 차이로 발생하는 늘봄 격차를 줄이고,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생 안전도 한층 강화한다. 초등 1~2학년을 중심으로 ‘동행 귀가’ 원칙을 적용하고, 늘봄지킴이 인력을 확대해 귀가

안전을 보장한다. 아울러 전북경찰청과 협력한 단역 순찰제 운영으로 학교 밖 이동 안전도 함께 확보한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강사에 대한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 명확화, 강사 결격 사유 신설, 민족도 조사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늘봄학교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전북형 늘봄 학교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학교와 지역이 함께 아이의 성장을 책임지는 교육·복지 통합 모델”이라며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늘봄 환경을 만들어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는 전북형 교육정책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 전북교육청 “학생 주도 탐구 역량·교사 수업 실행력 강화”

### 과학교육·융합교육 내실화 과학교육 기본 계획 수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6년 학교 현장 중심의 과학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탐구하는 즐거움, 미래에 도전하는 힘을 키우는 과학교육’을 목표로 2026년 전북 과학교육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 주도 탐구 역량과 교사의 수업 실행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미래형 과학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지능형 과학실을 초·중·고 100 개교에 구축하고, 학교당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능형 과학실은 디지털 실험 도구와 데이터 기반 탐구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학생이 스스로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 수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진로 탐색 프로그램인 나사(NASA) 글로벌 캠프는 기존 중학교 1학년 대상에서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변경해 운영한다.

이는 미국 현지에서 진행되는 이동 중심의 일정과 고강도 체험 프로그램

의 특성을 고려해 학생의 신체·정서적 발달 수준과 학습 경험에 보다 적합한 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캠프 일정에 안정적으로 참여하며, 우주·과학 탐구 활동에 더욱 깊이 몰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융합교육(STEAM)은 그동안 기반 구축 단계에서 올해는 수업과 교육과정에 실제로 안착하는 ‘내실화’ 단계로 전환한다.

학교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실행 가능한 STEAM 동아리 프로그램을 확산하

고,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 중심 수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STEAM 콘퍼런스’를 신규로 개최해 학교별 융합교육 운영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교원 간 협력과 정책 환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2026년은 과학교육과 융합교육이 정책 차원을 넘어 교실 수업 속에서 학생과 교사가 함께 체감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학생 주도 탐구와 교사의 전문성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 전북현대모터스FC 전진우, 잉글랜드 챔피언십 이적

### 옥스포드 유나이티드 러브콜 ‘유럽 진출 꿈 이루다’

전북현대모터스FC(단장 이도현) 공격수 전진우가 유럽 무대 진출의 꿈을 이뤘다.

전북현대가 지난 20일 팀의 핵심 공격수인 전진우의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리그) ‘옥스포드 유나이티드’ 이적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이적은 팀의 핵심 전력을 보낸다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선수가 가진 유럽 진출에 대한 원대한 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구단의 대승적 결단 아래 성사됐다.

구단은 전진우가 지난 시즌 팀의 우

승을 위해 보여준 현신과 선수의 오랜 꿈이었던 유럽 진출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이번 이적을 합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진우는 지난 2024년 7월 전북현대에 합류해 팀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했다.

이후 2025시즌 K리그1에서만 16골을 터뜨리며 득점 2위에 오르는 등 전북현대의 더블 우승의 가장 핵심 주역으로 활약하며 팀과 함께 성장했다.

특히 중요한 순간마다 터진 그의 득점포는 전북현대 팬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으며, K리그1 최고의 공격수로서 입지를 굳혔다.

그의 활약과 잠재 능력은 대표팀에

서도 인정받아 지난해 여름에는 성인

대표팀에도 발탁됐다.

전진우가 활약하게 될 ‘옥스포드 유나이티드’는 현재 리그 23위에 머물며 강등권 탈출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해당 구단은 전진우의 폭발적인 득점력과 경기 영향력을 높게 평가해 팀을 위기에서 구할 ‘특급 소방수’로서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진우는 이에 대해 “전북현대라는 최고의 클럽에서 우승을 경험하고 팬분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아 행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구단과 끝까지 응원해주신 팬들께 감사드리며, 잉글랜드에서도 전북현대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정철 기자

## THANK YOU #14 JEON JINWOO



고 전했다.

/장정철 기자

## 전북교육청, 진로교육 전문성 신장 연수 운영

### 진학지도 역량 강화 중점

△신산업 분야 현장 실습 등이다.

특히 이 연수는 각 분야의 전문 교사와 교수,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진로교육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교원이 학생의 진로를 염두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며, 교과교육과 진학지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학교 단위의 진로교육 체계 정착이 기대된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진로교육은 학생이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해 나가는 전 과정에서 교육과정을 통해 미래 역량을 기르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모든 교원이 함께하는 교육과정 중심의 진로교육을 활성화해 학생들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 군산대-법무법인YK ‘학생권익보호’ 협약 체결

국립군산대학교 인권센터는 21일 법무법인 YK와 학생 권리 보호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국립군산대 엄기욱 총장 직무대리, 권양섭 인권센터장이 참석했다.

법무법인 YK 측에서는 이선우 변호사(군산분사무소장), 박차오름 변호사가 참석해 양 기관 간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립군산대는 인권 침해 대응 체계를 마련해 학생들이安心하고 신고와 상담을 할 수 있는 캠퍼스 문화 조성과 더불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법률 상담 지원을 통해 인권센터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

대된다.

법무법인 YK 군산분사무소장 이선우 변호사는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법률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군산대 권양섭 인권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권리 보호와 법률적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률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인권을 존중받는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립군산대 인권센터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내 인권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인권 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 한파주의보란?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C 이상 하강하여 3°C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C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12°C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한파경보란?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C 이상 하강하여 3°C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C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15°C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정읍시, 소나무재선충병 차단 위해 '합제나무주사 약제' 배부

정읍시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적기인 3월을 앞두고 예방 약제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요 조사를 마치고, 2월 중 약제 배부와 교육을 완료해 방어망을 구축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소나무 반출금지구역(17개 동, 8개 면 37개 리) 내에서 0.1㏊ 이상의 소나무를 재배·관리하며 합제나무주사 방제를 희망하고 방제 명령을 받은 농가다.

지원되는 약제는 예방 효과가 입증된 '합제나무주사액'으로, 나무에 한 번 주입하면 약효가 최대 4년까지 지속돼 방제 효율이 매우 높다. 특히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인 고부면 일대 산림을 대상으로 수종 전환(80㏊), 소구역 모두베기, 예방나무주사 등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약제 지원사업이 정읍 소나무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대상 농가의 적극적인 신청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시, 4·5종 대기 배출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

군산시가 4·5종 대기 배출 시설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1일 시는 대기환경 개선 및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총 4억 3,200만 원을 투입해 시설별 설치비의 6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는 2022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정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대기 배출 시설과 방지시설에 전류·온도·차압계 등의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해 정상 가동 유무 등을 원격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대상은 군산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대기 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4·5종 대기배출 사업장이다.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최근 3년 이내 설치된 측정기기·5년 이내 정부 지원으로 설치된 측정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월 5일까지 군산시 기후환경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자격, 사업절차,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내달 20일까지

## 2027년 해양수산사업 신청 접수

군산시가 수산업·어촌 및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활력 있는 어촌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과 어촌 활력 도모, 수산식품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오는 2월 20일까지 '2027년도 정부 지원 수산업·어촌·수산식품산업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 사업은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친환경 어구 보급, 어촌 발전 기반 조성, 수산식품산업 육성 등 해양·수산·어업·어촌 분야 정부지원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수산물 식품가공업체 등 사업 지침에 지원 자격이 명시된 군산시민으로, 군산시청(어업정책과·수산산업과)을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민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 등 자체 심의를 거쳐 정부 자금 지원 대상과 범위를 결정한 뒤, 전북특별자치도 및 해양수산부에 국가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을 발굴하고 국가 예산을 확보해 수산업·어촌 및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활력 있는 어촌 조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혁신적인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업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 "로컬푸드 운영 중단 없도록"

## 기존 조합 재위탁은 불가…소농 수수료 면제 등 혜택 확대

익산시가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농업인의 소중한 판로가 막히는 최악의 운영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출연 기관인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새로운 운영 주체로 하는 위탁동의안을 마련하고 시의회의 협조를 구하고 나섰다.

시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의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한 긴급 대응책을 제시했다.

시는 기존 수탁자의 계약 위반에 따라 계약 해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해법은 공공성을 갖춘 전문 기관의 투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시의회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조직 및 인적 쇄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협동조합에 다시 위탁을 맡기는 것은 행정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부실 운영을 방지해 향후 더 큰 농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는 운영 공백을 제로화하기 위해 이미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운영을 통해



익산시가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성과 시스템이 검증된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구원투수로 내세웠다. 센터 위탁이 결정될 경우 어양점은 즉시 정상 가동되며, 농가에는 이전보다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연 매출 500만 원 미만 영세 소농에 대한 '판매 수수료 전액 면제' 정책이 어양점에도 전격 도입되며, 중단 위기에 놓였던 택배비와 포장재 지원 사업도 안정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현재 시는 직영 예산 삭감으로 인해 독자적인 직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시는 재단법인 위탁이 농업인을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시

의회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했다.

이번 결정은 3선 임기를 마무리하는 정현율 시장의 '시민 중심, 현장 중심' 철학에 따른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익산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땀과 눈물이 담긴 삶의 터전인 로컬푸드 어양점의 문이 닫히는 일은 결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민이 재배하고 익산시가 판매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지역 농업의 근간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14억 5천만원 투입 경로당 새 단장

### 362개소 대상 개보수 기능보강 사업 추진

정읍시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총 14억 5000만원

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경로당 362개소

를 대상으로 대개적인 개보수 및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경로당의 환경을 개선해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

됐다. 지원 대상은 경로당 신축 1개소 △노후 정도와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개보수 대상 182개소 △에어컨, TV, 냉장고 등 주요 가전제품과 비품의 기능 보강이 필요한 179개소 등 총 362개소다.

특히 시는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높은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사업의 실현성을 높였다. 이를 위해 읍·면·동 단위의 수요 조사와 현장 확인 과정을 거쳐 최종 사업 대상지를 확정했다.

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과 효

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공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행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이 서로 소통하고 휴식을 취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 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시, 2027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확정

### 총 37건·전액 491억 규모 신규사업 발굴

익산시가 지역발전의 자양분이 될 내

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익산시는 21일 최재용 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2027년 국가예산 신규 사업 37건(491억 원 규모)을 확정했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정부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신규 사업 발굴에 집중해 왔다.

주요 발굴 사업은 △스마트농업 인공

지능센터 구축 △목천포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한국콘텐츠진흥원 익산분원 설립 △K-메가복합 영상단지 등이다.

시는 신규 사업과 지난해 미반영된 사업 등 50대 중점사업을 선정해 본격적인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재난안전산업 진흥원 건립 △소상공인연수원 건립 △K-그린바이오 혁신 허브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사업 등 지난해 국회 최종 심사 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도 논의를 강화해 2027년 예산 반영을 목표로 재

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부처 단계 예산 편성부터 기획예산처와 국회 심의까지 단계별 맞춤 전략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최재용 부시장은 "국가예산은 익산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각 부서에서는 중앙부처, 전북특별자치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부처 예산안 단계부터 우리 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시민주도 기본사회' 이끌 추진단 모집

### 시민 중심 상시 거버넌스 구성…25일까지 모집

군산시가 오는 25일까지 '기본사회' 밀그리ム을 함께 그려 나갈 '군산시 기본사회 시민주진단'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고 '기본사회' 밀그리ム을 함께 그려 나갈 시민참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본사회 추진단은 △기본생활(주거·돌봄·의료) △교육·문화 △경제·환경(에너지·일자리) 등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는 시민들의 욕구를 조사

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정책 형성 과정 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다.

특히 시민 중심의 상시 거버넌스로 행정 주도의 정책 결정이 아닌, 시민이 직접 생활 속 기본권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안하는 등 '정책 설계자'로 활약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주진단이 정책의 제안부터 점검, 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만큼, '군산형 기본사회' 시민 욕구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25일 까지로 이메일(seyh7048@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청 기획예산과(☎063-454-2708)로 문의하거나, 군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회 시민학교'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민학교'는 기본사회의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정책을 기획·제안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단순 참여를 넘어서 '기획형 시민 전문가 그룹' 육성을 목표로 한다.

만 15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군산형 기본사회 시민 욕구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25일 까지로 이메일(seyh7048@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청 기획예산과(☎063-454-2708)로 문의하거나, 군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 97억 투입 '영농길' 시원하게 뚫는다

### 20개 읍면동 321개소 경비

져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시가 2026년 영농철을 앞두고 농민들의 작업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영농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대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에 나선다.

익산시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20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농로 포장, 농배수로 정비, 기계화 경작로 확보장 등 총 321개소에 97억 원(도비 16억 원·시비 81억 원)의 예산을 전격 투입한다고 밝혔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는 농민들의 영농 편익은 물론,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과 직결되는 민생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이 대폭 개선되는 것은 물론, 농작업의 효율성이 높아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공무직노조 "상생과 협력 약속"

정읍시와 전국공무직노동조합이 8개월간의 긴 협상 끝에 노사 상생을 위한 합의점을 찾았다. 시는 21일 시정 시장실에서 2025년 공무직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근로 조건 개선과 복지향상을 통해 대시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노사 합의가 공무직 근로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공무직 근로자는 시정의 동반자로서 청소, 환경, 시설 유지 등 곳곳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큰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노·사 협력 및 상생을 전제로 지속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시민참여 리빙랩' 발대식

군산

# 고창군,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총력'

9억 원 투입해 총력 대응…4월 말까지 집중 방제 기간

고창군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제 사업에 총력전을 펼친다.

사업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활동 시기 이전인 4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나무 조직 내에 재선충을 옮겨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병이다.

한번 감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해 초기 발견과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군은 관내 반출 금지구역 8개 읍·면(1만1860㏊)를 중심으로 매개충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인 4월 말까지를

'집중 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에 돌입한다.

우선 경관적 가치가 높은 주요 가로수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복과 감염 우려복을 모두 베고, 병해충 저항성이 강한 활엽수로 바꾼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방제비용을 절감하고 기후변화에도 강한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수종 전환 방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방제 예찰단을 가동해 산림 인접 지역과 가시권 외곽 지역의 예찰을 강화한다.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소나무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땔감 등으로 무단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청자박물관, 평가인증 우수기관 선정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우수' 4회 연속 선정

부안군은 부안청자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5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며 4회 연속 인증이라는 뜻깊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는 부안의 역사와 정신을 품은 박물관이 꾸준한 노력과 진정성 있는 운영으로 공공문화기관의 모범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 후 3년이 상경과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통해 진행됐다.

부안청자박물관은 설립 목적을 충실히 실현하고 전시·교육·연구·소장품 관리 등 박물관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고려청자의 아름다움을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전시와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은 관람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우수 기관 선정으로 이어졌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가 처음 시행된 2017년부터 2019년, 2022년, 2025년 까지 단 한 번의 공백도 없이 4회 연속 인증을 획득한 부안청자박물관은 일회 성 성과가 아닌 오랜 시간 축적된 신뢰

와 꾸준한 성장을 바탕으로 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안청자박물관은 고려청자 요지라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상설·기획 전시, 청자 제작 체험, 학술 연구,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지역 주민과 관람객이 함께 머물고 공감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군 관계자는 "4회 연속 평가인증은 박물관을 찾아주신 관람객과 지역사회, 묵묵히 역할을 다해온 관계자들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부안의 고려청자 문화유산이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며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따뜻한 박물관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시 '영농정착·농가주택 수리 사업' 신청·접수

내달 2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제시는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월 2일까지 사업대상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귀농 초기 단계에서 부담이 큰 영농 기반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지원해, 귀농·귀촌인의 안

정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농촌 정주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소형 농기계와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등 영농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원 규모로 약 5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1천만 원까지 보조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빙진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이다.

이승종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영농 기반과 주거환경을 함께 지원해 귀농·귀촌인의 실질적인 정착을 돋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 "마을 앞길 닦아주신 군수님 상 좀 주세요"

고창상하면 거주노부부  
李대통령에 보낸 편지화제

고창군 상하면 노부부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고창군수를 칭찬하는 손편지를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

부부는 집안사정으로 정규학교도 못 마친 탓에 가막눈으로 평생을 살아왔다.

그러던 중 한글을 배우면서 꾹꾹 눌러쓴 생애 첫 편지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쓰게 됐다.

부부가 살고 있는 상하면 용대마을 왕방골길은 좁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남 영광군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곳이다.



고창군 상하면 노부부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고창군수를 칭찬하는 손편지를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고창군>

은 엄두도 못냈다.

부부의 소원은 뜻밖에 심덕섭 고창군 수의 방문으로 성취됐다.

심 군수는 2023년 봄 취임 초 행정경 계지역 주민들을 살피기 위해 용대마을을 찾았고, 이들 부부와 마을주민들의 의 간곡한 믿음을 듣게 됐다.

얼마 뒤 마을앞길 확·포장 작업이 결 정됐고, 그해 겨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임대해 사용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오는 12월까지 납부하는 임대료에 인하 요율이 적용된다.

군은 지난해에도 49개소에 약 22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하며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기여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정책

연장에 발맞춰 현장의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덜어드리고자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며 "임대료 감면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면 대상은 현재 군 공유재산을

부안군, 매피풍류마을도시재생 거점시설상생협력상가입주자모집

부안군은 매피풍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 내 상생협력상가입주자를 공개입찰 방식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상생협력상가입주자는 부안어울림센터 1층 카페 1개소와 창업플랫폼 1동 1호로 입찰 접수는 오는 2월 3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또 오는 30일에는 현장 설명회를 개최해 시설 현황 등 입찰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입찰은 행정안전부 지정 정보처리장치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용료는 최고가 낙찰을 통해 산정된다.

입주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협의에 따라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모집 업종은 매피풍류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라 어울림센터는 휴게음식점, 창업플랫폼은 일반음식점으로 제한되며 예비 창업자와 기존창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입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와 부안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입찰공고를 참조하거나 부안군 새만금도시과 도시재생팀(☎ 063-580-4845)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시, 파크골프장 안전사고 예방 '임시 휴장'

김제시가 잔디 생육과 이용자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청하 파크골프장과 죽산 파크골프장을 임시 휴장한다.

시는 청하 파크골프장과 죽산 파크골프장에 대해 동절기 및 해빙기 기간인 오는 2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69 일간 한시적으로 휴장한다고 밝혔다.

파크골프장 휴장은 그라운드 내 천연 잔디의 생육과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휴장기간 동안 파크골프장의 모든

이용객의 출입이 제한되며, 필요한 부분에 잔디 보식 및 제초 작업을 시행하고, 시설물 점검 실시 후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즉각 조치해 최상의 라운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잔디 생육 및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용적인 조치인 만큼, 휴장 기간 동안 시설물을 정비해 더욱 편리한 환경에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부안군, 공공건축물 건립 주요 현장 점검

부안군은 정화영 부군수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재무과에서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현장 10개소를 방문해 각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장의 문제 해결과 개선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점검 첫날에는 변산면 청사 건립,

학교복합시설 건립,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 등을 방문해 이용객들의 편의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둘째 날에는 진서면사무소 신축, 부안농공단지 임대형 기숙사 건립, 온가족센터 주차장 건립, 행안면 복합청사 건립,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건립 사업 현장을 방문해 철저하고 안전한 공정 관리로 마무리해 빠른 시일 내 시설을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화영 부군수는 "공공건축물은 우리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만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시, 치매안심센터 방문 시 검사비 지원

김제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검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60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치매 검사비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소득기준이 적합한 시민 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연령 기준만 충족하면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누구나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진비 지원 사업은 "치매는 조기 발견이 예방의 시작"이라는 인식 아래, 더 많은 어르신이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확대 시행됐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와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김제우석병원 △제일신경 정신건강의학과 △미래병원 △희망병원 등 4개소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 진단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치매비 부담 없이 정기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돋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사 지원과 치매 예방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군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공모' 사업설명회 열어

고창군이 지난 16일 고창군농업인회관에서 '2026년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노지 배추, 무 재배 생산자 단체와 농업인 150여명이 참여했다.

군은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공모사업의 취지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이해를 도왔다.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공모사업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95억 원을 투입한다.

노지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솔루션 도입, 기술 역량 강화 등이 진행된다.

주요 사업으로 농업용수 개발, 공동방제 및 재해예방 시설, 관수·관비 제어 시스템, 자율주행 키트 및 AI기반 병해충 예찰 시스템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성사업'관련, 배추·무 주요 주산지에 스마트농업 솔루션 확산으로 대규모 노지 스마트 전환과 공동·유동 등 전·후방산업과 접목화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지역단위 노지 스마트농산업 확산 거점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 완주군 '소상공인 경영애로해소단' 가동

전문가사업장 방문 및 출판 컨설팅  
자금·디자인·마케팅 등 5개 분야  
최대 5회까지 비용·군비 전액 지원

완주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와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경영애로해소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컨설팅에 참여할 소상공인 10개사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경영환경 변화와 매출 부진, 마케팅·유통 전략 부족 등 다양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현장 밀착형 지원사업이다.

컨설팅은 △자금 및 공모·지원사업 △디자인 △마케팅 △유통 △상품화

및 기술 등 5개 분야로 진행되며, 소상공인이 겪는 주요 애로 사항에 맞춰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완주군 소재 소상공인이며, 선정된 업체에는 자부담 없이 최대 5회까지 컨설팅 비용 전액을 군비로 지원한다. 다만,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가 완주군이 아닌 업체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컨설팅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청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규모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군은 2025년 기업애로해소단 운영사

를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이러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현장 수요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수 완주경제센터장은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함께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시, 소상공인 상가환경 개선 최대 500만원 지원

64개소 내외 시비 3억 2천 투입  
총사업비 70% 범위 내 지원

남원시는 내수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꾸준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상가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3억 2천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약 64개소 내외의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가 내·외관 개선

및 필수 시설·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남원시에 사업장을 두고 3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옥외간판 교체 △외부 도색 및 외벽공사, 차양·설치 △내부 도배·도색·바닥·조명 공사 △화장실 개선 △냉·난방기 구입 등이며, 컴퓨터·가전·가구 등 자산 취득성 물품과 영업물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이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재산세 납부액과 매출액, 사업 영위 기간, 거주 기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가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군, 동계 전지훈련 메카 부상...지역경제 활력

선수단 200여명 유치 상권 '특수'  
악천후 대비·행정지원 등 호평

순창군이 동계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스포츠산업도시의 입지를 공고히하고 첨제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현재 순창군에서는 수원 장안고 야구부(박민 감독), 광주BC 야구단(신종길 감독), 소프트테니스 품나무선수단(강기영 감독), 경상대 소프트테니스팀(김도훈 감독)이 순창군을 찾아 구슬땀을 흘리며 동계 훈련에 한창이다.

여기에 아산시 유소년 야구단(황민호 감독), 한경대 소프트테니스팀(권영태 감독), 화성시청 소프트테니스팀(한우식 감독)이 차례로 순창을 찾아 동계 훈련캠프를 차릴 예정이다.

이번 동계 시즌 동안 7개 팀 2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게 되며, 팀별로 적어도 7일부터 많게는 한 달 동안 순창에 머물러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계 시즌 동안 7개 선수단이 팀별로 최소 7일 많게는 한 달 순창군에 머물면서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순창군>

이처럼, 순창군이 전지훈련지로 주목받는 이유는 잘 갖춰진 스포츠 인프라에 있다. 특히 눈이나 비 등 악천후에도 훈련할 수 있도록 실내 시설이 마련돼 있다는 점이 큰 강점으로 꼽힌다.

또한, 실내 다목적구장에서는 소프트테니스팀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짐 중 훈련을 할 수 있으며, 야구 종목의 경우 실내 야구 연습장을 갖추고 있어 동계 훈련의 취약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신축 '순항'... 6월 준공 목표

노후 대한노인회 남원지회 철거  
동일 부지에 52억 투입 재건축

남원시는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987년 준공된 (사)대한노인회 남원지회 건물이 균열·누수, 엘리베이터 부재 등 노후화로 이용 불편이 커짐에 따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동일 부지에 신축하는 사업이다. 부지는 기부채납으로 확보했으며,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종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시는 2025년 4월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가 올해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남원시는 지난 2025년 4월 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을 추진해 올해 6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사진은 투시도. <사진=남원시>

총사업비는 52억 5,600만원으로, 2025년도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모로 지하 1층~지상 2층으로 조성된다.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대강당, 방송실, 사무실, 식당·엘리베이터 등을 갖춘 복합 복지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52억 5,600만원으로, 2023년도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10억원

과 2025년도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시비 32억 5,600만원이 투입된다. 남원시는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해 올해까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생강문화공간 시양' 내달부터 본격 운영

전통농업 보존·체험 결합 거점  
'온돌식 생강굴' 컨텐츠 선봬

완주군은 '완주생강문화공간 시양'의 시범운영을 1월로 마무리하고, 오는 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봉동읍 낙평리 일원에 조성된 '완주생강문화공간 시양'은 국가 중요농업유산인 완주생강전통농업시스템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체험·교육·관광과 결합한 농업유산 보존위원회, 사회적협동조합 농원, 시니어클럽 등 지역 협력단체가 운영 과정에 참여해 농업유산 보존은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세대 간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시설로는 △생강을 테마로 한 실감형 미디어아트관 △농업유산 교육 및 체험을 위한 커뮤니티 실 △다양한 생강 음료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시양카페' 등을 갖췄다.

특히 전통 온돌식 생강굴을 리모델링해 보존한 '생강굴 보존주택'과 연계 운영해, 관광객이 농업유산의 현장을 체감할 수 있는 참여형 컨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군은 본격 운영에 맞춰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전 연령대가 만족할 수 있는 편안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운영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사회 협력도 강화한다. (사)완주생강전통농업시스템 보존위원회, 사회적협동조합 농원, 시니어클럽 등 지역 협력단체가 운영 과정에 참여해 농업유산 보존은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세대 간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생강문화공간 시양은 단순한 전시 시설을 넘어 완주 생강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 전달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2026년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농업유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완주군의회, 지역 경로당 71곳 순회 방문 "새해 인사와 소통"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새해를 맞아 지역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관내 경로당 순회 방문에 나섰다.

이번 순회는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되며, 봉동읍을 비롯한 관내 구만리, 신성리, 은하리, 성덕리, 고천리, 구암리 등 71개소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는 일정으로 마련됐다.

일정 첫날인 19일에는 구만리 건진 경로당을 시작으로 봉강, 구만, 서당 경로당과 신성리 일대 아파트 경로당을 차례로 방문해 어르신들께 새해 인사를 전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20일에는 낙평리 주공아파트 경로당과 신기, 신월 경로당 등을 방문해 동절기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 여건을 세심히 살폈다.

김 부의장은 이번 순회를 통해 경로당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과 마을별 숙원 사업 등 다양한 현안과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있다. 이후 일정은 제내리(22일), 율소리·은하리(23일), 장기리(27일), 둔산리(28일)를 거쳐 30일 성덕·고천·구암리 방문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재천 부의장은 "앞으로도 밭 뛰는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통해 어르신이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완주군을 만드는데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

순창군이 2026년에도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군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소, 서부권, 복흥·쌍치 권역에 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이며, 총 42기종 765대의 농기계를 보유해 농가 수요에 맞춘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비 관리 역시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임대사업소는 총 6,368건의 농기계 임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농작업 대행, 파쇄기·원심분리기 등 다양한 현장 중심 사업을 통해 약 64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복흥·쌍치 권역 임대사업소는 총 2,097건의 임대 실적을 기록, 전체 실적의 약 32%를 차지하며 장비 접근성 향상과 농번기 대기시간 단축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농업인의 경영비를 절감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장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장=박지현 기자

## 완주군, 마을세무사 6명 위촉 무료 세무 상담

제6기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10년간 1,344건 상담 실적

완주군이 지난 20일 '제6기 마을세무사' 위촉식을 열고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6명을 위촉했다.

김재곤, 김건영, 김현승, 소창섭, 유희준, 정원서 세무사로, 임기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마을세무사는 완주군 전 지역을 찾아가 영세사업자와 취약계층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재능기부로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절세를 돋고, 상당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생활 밀착형 세무 서비스 역할을 한다.

상당 희망자는 완주군청 재정관리과(290-2329) 및 각 읍·면사무소에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상당 신청 가능하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은 20일 '제6기 마을세무사' 위촉식을 열고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6명을 위촉했다. <사진=완주군>

## 남원시, 장애인 편의 확대 모바일 등록증 발급 서비스

남원시는 오늘부터 기존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함께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서비스가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장애인등록증으로, 기존 플라스틱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 전자 증명서다. 휴대폰 간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에서 실물 카드 대신 모바일로 신분 및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발급 방식에 따라 절차가 구분된다. IC칩이 내장된 신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편번호 등록 후 본인의 스마트폰에 해당 앱(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을 설치 후 IC 등록증을 스마트폰에 태깅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QR코드 인증을 통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교체 또는 분실 시에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재발급이 가능하다. /남원=정하복 기자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  
2026년 신년인사회 개최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진)는 지난 20일 산야조타운에서 '2026년 복지네트워크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지역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임직원, 사회복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춘성 군수 및 진안군의원 등 주요 내빈이 함께 자리 빛냈다.

행사는 신년하례, 회장 신년사, 축사, 교류·소통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자유로운 담소와 교류의 시간을 통해 기관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상호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춘성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민·관이 함께 만드는 복지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의회 김진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시는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2026년에는 더욱 촘촘한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해 진안군 사회복지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읍 제9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주민 복지 증진 시동

장수군 장수읍은 장수읍 행복지관에서 제9기 장수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위촉식은 장수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참여할 제9기 주민자치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9기 주민자치위원회는 작년 12월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위원 25명과 고문 3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임원 선출과 월례회의가 차례로 진행됐으며, 임원진으로는 김병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부위원장에는 김희열·김순자 위원이 각각 선출됐다. 새롭게 구성된 임원진은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며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 현안 해결에 중시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된 제9기 장수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복지 증진과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며, 지역 사회를 이끄는 주민 대표 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청년농업인 드론방제단 마이삭, 진안군에 장학금 기탁

마이삭영농조합법인(청년농업인 드론방제단)은 21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진안군 사립장학재단에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청년농업인들이 드론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적극 도입해 병해충 방제와 농작업 효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창출한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한 사례로 의미를 더했다.

마이삭영농조합법인은 드론을 활용하여 방제·파종·생육 관리 등 다양한 농작업 지원 활동을 통해 지역 농가의 작업 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현장 맞춤형 지원을 통해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종진 마이삭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청년농업인들의 땀과 노력으로 마련한 수익금을 지역 인재 육성에 보낼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 무주군, 취업 청년 주거비 지원 신청

23~30일까지 대상자 모집

기준중위소득 기준 완화

180% 이하로 20% 상향 조정

무주군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 취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자립을 돋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거주하며 취업(근로·사업·농업) 중인 18~49세 무주택 청년으로,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기

준을 180% 이하로 20% 상향 조정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대상자 선정은 자격을 충족한 신청자의 기준중위소득(40%), 재직기간(30%), 나이(30%)를 반영해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LH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모집인원은 50명으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 및 월 임대료의 50%를 월 최대 20만 원 한도로 최대 12개월간(생애 1회) 지원한다.

오경태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청년정

책임장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취업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 경제적 자립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 이후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올

해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만큼 흥보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신청서 및 제출 서류는 무주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 또는 청년정책 게시판을 참고해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으로 방문·제출하면 된다.

/무주=최의호 기자

## 임실군, 다문화가족 육아지원금 지원

만8세 미만 아동 매월 10만원 지원

임실군은 다문화가족의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육아 지원금을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지급한다고 밝혔다.

육아지원금은 다문화가족의 생활 안정을 돋우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심민 군수의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향후 아동 양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임실군, 주민 체감형 고향사랑기부 대전환

올해부터 세제혜택 대폭 확대  
원하는 사업 선택 기부 가능

임실군이 2026년 새해를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 확대와 함께, 기부금 활용한 주민 복리 증진 사업을 확장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세제 혜택 강화와 기금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기부자의 부담은 낮추고, 군민 삶의 질은 높이겠다는 취지다.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기준에는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 전액에 대해 16.5%의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 공제율이 44%로 대폭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20만원을 기부할 경우 환급액은 기준 11만 6,500원에서 14만 4,000원으로 늘어난다. 10만원까지 전

액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중간 구간의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돼 기부자의 실질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임실군은 세액공제 혜택 확대에 발맞춰 기부자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체감형 기금사업과 지역특색을 살린 담례품 발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는 '오수 앙공 꿈나루 육성지원' 사업과 '저소득층 1인가구 간병비 지원' 사업 등 지역 여건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신규사업을 확정해, 기부금이 군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했다.

군은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총 14억 4,880만원 규모의 9개 기금사업을 추진한다.

△관내 유제품 학교급식 지원, △청년월세 지원, △농촌유학 빙집재생사업

/임실=한병열 기자

## 진안군, 한파 대비 현장 행정 추진

스마트 승강장·한파쉼터 등 점검

진안군은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1일 한파 대비 현장 행정을 추진했다.

군에 따르면 1월 21일 기준 진안군 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오는 24일까지 강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급격한 기온 하강에 따른 군민 불편과 한랭질환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진안군은 한파 대응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관내 스마트 승강장과 한파 쉼터를 찾아 운영 실태와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이 날 점검에 나선 진안부군수는 먼저 진안고원시장 스마트 승강장을 방문해 난방기 작동 상태와 출입문 개

폐 여부, 내부 체온온도 등을 확인하며 "짧은 대기 시간이라도 한파에 노출될 경우 어르신과 학생 등 교통약자에게 큰 불편과 위험이 될 수 있는 만큼 시설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귀면 삼거석 마을회관 한파쉼터를 찾아 난방 상태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관리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보호와 관심을 강조했다.

진안군은 앞으로도 한파 쉼터 운영 관리 강화와 취약계층 안부 확인 및 이용 안내 홍보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파 대응 행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 김관영 전북도지사, 무주군 방문···'한계 넘어 세계 향해'

김 지사, 무주 전북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 약속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1일 무주군을 찾았다. '2026년 도민과의 대화'를 위해 무주를 방문한 김관영 지사는 먼저, 무주반딧불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를 전달했다.

이어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청년농업인 드론방제단 마이삭을 만나 장학금 기탁을 수령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1일 무주군을 찾았다

도전경성(挑戰竟成)의 도정 철학을 바탕으로 초심을 지키며 전북의 미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도와 손잡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데 자긍심을 느낀다"라고 전했다.

이어 "무주가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더 힘찬 도약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더 힘찬 도약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약을 위한 공생을 다짐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환영사에서 "K-

관광수도 자연특별시, 무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도와 손잡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데 자긍심을 느낀다"라고 전했다.

이어 "무주가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더 힘찬 도약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약을 위한 공생을 다짐했다.

이어 "무주가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더 힘찬 도약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약을 위한 공생을 다짐했다.

이어 "무주가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더 힘찬 도약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약을 위한 공생을 다짐했다.

이어 "무주가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더 힘찬 도약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약을 위한 공생을 다짐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 장수군, 연초부터 국회와 주요 현안 공유 본격화

지역 발전 동력 확보 기대

또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장수군 관련 사업 반영 △동화댐의 냉간설관리법 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법안 발의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장수군은 생태관광 기반 확충과 수자원 관리 체계 개선,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주요 현안 해결을 통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군은 교통 여건 개선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과 100만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우 부군수는 "연초 국회 방문을 통해 장수군이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수군은 이번 국회 방문을 계기로 중앙정치권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주요 현안 사업이 국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임실군, 통합돌봄 체계 구축 본격화

통합지원협의체 출범

임실군은 지난 16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임실군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및 자문기구로 위원장인 심민 군수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의료·복지·학계·현장 전문가 등 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에 통합지원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 지역 주민이 살던 곳(집)에서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임실=한병열 기자

## 장수군, 7개 읍면 산불감시업무 담당자 간담회 개최

현장 목소리 반영 감시대응체계 강화

장수군은 군민회관에서 산불 감시업무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7개 읍면 산불담당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산불 발생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봄철 산불 조심기간을 맞아 산불 감시 업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다 효과적인 산불 예방 및 초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산림과장, 산림보호팀장 및 7개 읍·면 산불담당 공무원 20여명 등이 참석해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봄철 산불 예방 추진 방향 △산불 발생 시 초동 대응 요령 △산불 취약지역 집중 감시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장수=최진수 기자



김경희 한국희망교육개발원장  
고창군에 300만원 기탁

고창군과 인연을 맺은 한국희망교육개발원 김경희 원장이 지난 20일 고창군청을 찾아 300만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김경희 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2024년 200만원, 2025년 300만원에 이어 올해까지 3년간 고창군에 마음을 전달해왔다. 김경희 원장은 “고창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이며 “이번 기부를 통해 내 마음속 고향, 고창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창군은 기탁받은 고향사랑기부금을 청소년, 취약계층, 지역 활력 증진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금사업에 투명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계획이다.

고창군수는 “고장을 내 마음속 고향으로 품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부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정성이 모여 고창은 오늘 기부와 함께 더욱 빛났다”며, “기부가 가진 의미를 높여, 기부의 가치를 올리는 고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진안군사회복지행정연구회  
취약계층에 100만원 전달

진안군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21일 진안군에 이웃돕기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진안군정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모임인 진안군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기부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대환 사회복지과장과 진안군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윤인순)이 참석해 “회원들이 지역 사회에 나눔 실천하겠다는 뜻을 모아 이번 후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진안군은 전달된 후원금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진안군은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 미원상사, 완주군 아동 위해 1억 1천여만원 쾌척

### 근로자들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정성 담겨

완주군 관내 기업인 (주)미원상사(전주1·2공장)와 (주)미원스페셜티케미칼 전주공장 임직원들이 지역 사회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21일 (주)미원상사 전주공장 관계자들은 유희태 완주군수를 찾아 ‘저소득가정 아동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총 1억 1,235만 원으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가정

아동 51명에게 1년간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후원금은 기업의 기부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정성이 담겨 의미를 더했다.

해당 기업의 나눔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년간 꾸준히 후원 규모를 확대해 왔으며, 2023년 3,470만 원, 2024년 3,370만 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6,695만 원을 기부하는 등 현재까지 총 1억 3,535만 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지난 21일 (주)미원상사 전주공장 관계자들은 유희태 완주군수를 찾아 ‘저소득가정 아동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장수 천천면 이장협의회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장수군 천천면은 지난 20일 이장협의회는 천천면사무소를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돋기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고립 위험에 놓인 이웃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성금은 장수군 천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진하는 특화사업 등에 활용돼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천천면 이장협의회는 각 마을 이장들로 구성된 지역 대표 조직으로, 평소에도 주민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은 물론 지역화합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과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성금 기탁은 지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이장들이 뜻을 함께해 마련한 나눔으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온정을 전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NH농협 정읍시지부, 고향사랑기부금 1300만원 전달

### 주민들 복지 향상에 기여

NH농협 정읍시지부가 정읍시의 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정읍시는 21일 시청에서 이학수 시장과 NH농협 장길환 전북본부장과 김순기 정읍시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을 갖고, 13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정읍 지역의 고향

사랑기부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정읍시지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이 이뤄졌다.

김순기 지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발전은 물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읍시지부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기부의 시작을 알리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이리평화새마을금고, 익산시에 성금 500만원 전달

익산시 평화동에 설명절을 앞두고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전달됐다.

이리평화새마을금고(이사장 엄

양섭)는 21일 평화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센터장 강태순)로 지정기탁돼 ‘설명절 나눔보따리’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설명절 나눔보따리 사업은 자

원봉사단체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터가 함께 참여해 장애인과 독거 어르신,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300세대에 명절 물품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이리평화새마을금고(이사장 엄

양섭)는 21일 평화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센터장 강태순)로 지정기탁돼 ‘설명절 나눔보따리’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설명절 나눔보따리 사업은 자

원봉사단체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군산 경암동 지사협, 장수 어르신 생일파티 진행

군산시 경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1일 저소득 장수 어르신 생일파티 지원사업인

‘장수의 기쁨, 함께해孝!’ 사업을

진행해 생일을 맞은 저소득 장수 어르신 생일파티 지원사업인

‘장수의 기쁨, 함께해孝!’ 사업을

진행해 생일을 맞은 저소득 장수 어르신 생일파티 지원사업인

‘장수의 기쁨, 함께해孝!’ 사업을

진행해 생일을 맞은 저소득 장수 어르신 생일파티 지원사업인

‘장수의 기쁨, 함께해孝!’ 사업을

진행해 생일을 맞은 저소득 장수 어르신 생일파티 지원사업인

‘장수의 기쁨, 함께해孝!’ 사업을

진행해 생일을 맞은 저소득 장수 어르신 생일파티 지원사업인

‘장수의 기쁨, 함께해孝!’ 사업을

진행해 생일을 맞은 저소득 장수 어르신 생일파티 지원사업인

‘장수의 기쁨, 함께해孝!’ 사업을

진행해 생일을 맞은 저소득 장수 어르신 생일파티 지원사업인

‘장수의 기쁨, 함께해孝!’ 사업을

진행해 생일을 맞은 저소득 장수 어르신 생일파티 지원사업인

‘장수의 기쁨, 함께해孝!’ 사업을

진행해 생일을 맞은 저소득 장수 어르신 생일파티 지원사업인

‘장수의 기쁨, 함께해孝!’ 사업을

진행해 생일을 맞은 저소득 장수 어르신 생일파티 지원사업인

‘장수의 기쁨, 함께해孝!’ 사업을

진행해 생일을 맞은 저소득 장수 어르신 생일파티 지원사업인

‘장수의 기쁨, 함께해孝!’ 사업을

진행해 생일을 맞은 저소득 장수 어르신 생일파티 지원사업인

‘장수의 기쁨, 함께해孝!’ 사업을

진행해 생일을 맞은 저소득 장수 어르신 생일파티 지원사업인

‘장수의 기쁨, 함께해孝!’ 사업을

진행해 생일을 맞은 저소득 장수 어르신 생일파티 지원사업인

‘장수의 기쁨, 함께해孝!’ 사업을

진행해 생일을 맞은 저소득 장수 어르신 생일파티 지원사업인

‘장수의 기쁨, 함께해孝!’ 사업을

진행해 생일을 맞은 저소득 장수 어르신 생일파티 지원사업인

‘장수의 기쁨, 함께해孝!’ 사업을

진행해 생일을 맞은 저소득 장수 어르신 생일파티 지원사업인

‘장수의 기쁨, 함께해孝!’ 사업을

진행해 생일을 맞은 저소득 장수 어르신 생일파티 지원사업인

‘장수의 기쁨, 함께해孝!’ 사업을

진행해 생일을 맞은 저소득 장수 어르신 생일파티 지원사업인

‘장수의 기쁨, 함께해孝!’ 사업을

진행해 생일을 맞은 저소득 장수 어르신 생일파티 지원사업인

‘장수의 기쁨, 함께해孝!’ 사업을

진행해 생일을 맞은 저소득 장수 어르신 생일파티 지원사업인

‘장수의 기쁨, 함께해孝!’ 사업을

진행해 생일을 맞은 저소득 장수 어르신 생일파티 지원사업인

‘장수의 기쁨, 함께해孝!’ 사업을

진행해 생일을 맞은 저소득 장수 어르신 생일파티 지원사업인

‘장수의 기쁨, 함께해孝!’ 사업을

진행해 생일을 맞은 저소득 장수 어르신 생일파티 지원사업인

‘장수의 기쁨, 함께해孝!’ 사업을

진행해 생일을 맞은 저소득 장수 어르신 생일파티 지원사업인

‘장수의 기쁨, 함께해孝!’ 사업을

진행해 생일을 맞은 저소득 장수 어르신 생일파티 지원사업인

‘장수의 기쁨, 함께해孝!’ 사업을

진행해 생일을 맞은 저소득 장수 어르신 생일파티 지원사업인

‘장수의 기쁨, 함께해孝!’ 사업을

진행해 생일을 맞은 저소득 장수 어르신 생일파티 지원사업인

‘장수의 기쁨, 함께해孝!’ 사업을

진행해 생일을 맞은 저소득 장수 어르신 생일파티 지원사업인

‘장수의 기쁨, 함께해孝!’ 사업을

진행해 생일을 맞은 저소득 장수 어르신 생일파티 지원사업인

‘장수의 기쁨, 함께해孝!’ 사업을

진행해 생일을 맞은 저소득 장수 어르신 생일파티 지원사업인

‘장수의 기쁨, 함께해孝!’ 사업을

진행해 생일을 맞은 저소득 장수 어르신 생일파티 지원사업인

‘장수의 기쁨, 함께해孝!’ 사업을

진행해 생일을

〈一事一言〉



##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전북형 친기업 행정

김관춘  
주필

전북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1기업-1공무원 전담제'가 단순한 기업 지원 정책을 넘어, 행정과 기업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 행정이 기업 위에 존재하며 규제와 허가의 주체로 인식됐다면, 이 전담제는 공무원이 먼저 현장을 찾아가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 모델을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도 출범 3년여 만에 누적 애로사항 5,641건 접수, 실질 해소율 78.2%라는 수치는 전북형 친기업 행정이 결코 구호에 그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이 제도의 핵심 경쟁력은 '상시성'과 '현장성'이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도내 2,797개 기업과 전담 공무원을 1대1로 매칭해 월 1회 현장 방문, 주 1회 유선 소통을 원칙으로 삼은 것은 행정의 리듬을 기업의 흐름에 맞춘 과감한 전환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민원이 생길 때마다 담당 부서를 찾아 해매지 않아도 되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기업 경영 전반을 이해한 상태에서 보다 정교한 행정 지원이 가능해졌다.

인력, 환경·안전, 판로, 자금 등 애로 유형이 고르게 분포돼 있다. 점은 기업의 어려움이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얹혀 있음을 보여주며, 그만한 전담 공무원의 역할이 단순 중계가 아닌 종합 코디네이터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해소율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2023

년 54.6%에서 2024년 61.5%, 2025년 73.4%로 꾸준히 높아진 것은 제도가 안정화되며 기업과 행정 간 신뢰가 촉진된 결과다.

특히 시군 단위로 제도가 확산되면서 교통 안전시설 설치나 환경 정비, 단순 제도 문의 같은 생활 밀착형 애로가 늘어난 현상을,

기업들이 행정의 문턱을 낮게 느끼기 시작했다는 긍정적 신호다.

이는 통계상의 성과를 넘어, 기업 생태계 전반에 신뢰 자본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성과 사례들은 전담제가 왜 필요한지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새만금신도시에서 전력 수급 문제로 공장 가동을 걱정하던 기업이 전담 공무원의 끈질긴 협의로 정상적인 전력 공급 방안을 마련했고,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은 도내 농가와의 계약 재배로 경영 안정과 지역 상생을 원칙으로 삼은 것은 행정의 리듬을 기업의 흐름에 맞춘 과감한 전환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민원이 생길 때마다 담당 부서를 찾아 해매지 않아도 되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기업 경영 전반을 이해한 상태에서 보다 정교한 행정 지원이 가능해졌다.

인력, 환경·안전, 판로, 자금 등 애로 유형이 고르게 분포돼 있다. 점은 기업의 어려움이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얹혀 있음을 보여주며, 그만한 전담 공무원의 역할이 단순 중계가 아닌 종합 코디네이터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해소율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2023

을 정립해야 한다.

전담 공무원이 바뀌더라도 기업과의 관계, 누적된 애로사항, 해결 과정이 단절되지 않도록 기록 관리와 인수인계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 규모와 성장 단계에 따라 지원 방식에 차등을 두는 세분화 전략도 요구된다. 초기 창업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대기업 투자 유치 대상 기업의 애로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울러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지역 인재 육성, 산학연 협력, 금융 지원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시도도 필요하다. 기업 현장에서 수집되는 인력 수요와 기술 과제를 대학, 연구기관, 금융 기관과 연결한다면 단순 애로 해소를 넘어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을 업그레이드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전담제가 '문제 해결 창구'에서 '성장 동반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하는 이유다.

전북자치도가 이 제도를 통해 쌓아온 현장 행정의 경험과 신뢰를 보다 큰 정책 혁신으로 확장해 나갈 때, 전북형 친기업 행정은 전국 지방정부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제 제도는 이 성과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확장하느냐는 우선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과 권한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 애로가 고도화될수록 단순 전달자로는 한계가 있다. 산업별 이해, 재정·법제에 대한 기본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고, 부서 간 협업을 이끌 수 있는 조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예수님이 이단이 아닌 정통 신앙의 중심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교세의 크기나 일부 목회자들의 주장에 따라 신앙 단체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현실이 과연 정당한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신천지예수교회는 수차례 공개적으로 제안해 왔다. 이단 시비를 가리기 위해 감정이나 여론이 아닌, 성경을 기준으로 대중 앞에서 공개적인 성경 시험을 치르자고 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정한 응답은 아직 없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스스로 완전무결하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만일 교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잘 못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기를 바란다.

잘못이 있다면 고칠 의지가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자세를 견지해 왔다. 우리는 성경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도 반듯한

신양인이 되고자 노력해 왔고,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나섰고, 취약계층을 돋는 봉사에 참여했으며, 혈액 수급 위기 때는 한 헬로 사회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악'이라는 추상적 표현만 반복될 뿐, 구체적인 피해 사실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신천지를 향한 수많은 고소·고발이 있었지만, 사법 절차를 통해 무혐의 또는 무죄 판단이 반복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혐의가 덧씌워지고, 사회적 비난의 대상으로 소비되고 있다. 법적 판단이 이미 내려진 사안조차 정치적·여론적 공격의 재료로 재생산되는 것이 과연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과 정치권은 특정 집단을 희생양 삼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 종교를 정치적 위기관리의 도구로 삼거나, 다수 여론에 기대 소수 종교를 압박하는 방식은 국가 발전에도 민주주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어야 하며, 국가는 특정 신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본 란의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9일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일동

사설

## 행정경계를 넘은 결단, 혁신도시 악취 잡는다

전북혁신도시를 둘러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자치도와 전주시·김제시·완주군 등 4개 자치단체가 핫트으로 뭉쳤다.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공동의 문제를 공동의 책임으로 풀어가겠다는 이번 협력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새로운 상생 모델로서 의미가 크다. 주민 삶의 질을 저해해 온 환경 문제 앞에서 '우리 구역의 일'과 '남의 지역 문제'를 가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이번에 체결된 혁신도시 악취 해결 업무협약의 핵심은 재원 분담과 역할 분담의 명확화다. 김제시 용지면 특별 관리지역에 남아 있는 협업축사 27농지를 매입·철거하는 데 총 340억 원을 투입하고, 이 가운데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102억 원을 전북도와 3개 시군이 나눠 부담하기로 했다.

사업 대상지가 김제시에 위치해 있지만, 악취 피해를 함께 겪어온 전주시와 완주군이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는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협력 사례다. 이는 환경 문제의 영향권이 행정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한 결과다.

그동안 혁신도시 주민들은 지속적인 악취로 일상에 불편을 겪어 왔다. 1단계 축사 매입 사업 이후 복합악취 농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지만, 민원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잔여 축사 전량 매입과 체계적인 관리가 병행돼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2단계 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도가 협의·조정과 국비 확보, 성과 점검을 맡고, 김제시는 사업 시행과 관리 강화를 담당하며, 전주시와 완주군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악취관리자 역 지정과 사후 관리까지 빙틈없이 이어져야 한다.

오랜 시간 불편을 감내해 온 혁신도시 인근 주민들에게 이번 협력이 체감 가능한 변화로 이어질 때, 행정구역을 넘은 상생은 구하가 아닌 정책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다.

전북에서 시작된 이 협력의 경험이 다른 지역에도 전파돼, 지역 발전과 환경 개선을 동시에 이루는 새로운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

## 오늘의 시

눈 맞는 대밭에서 / 황지우

단식 7일째

도량 뒤편 눈 맞는 대밭에

어이없이 한동안 서 있다

창자 같은 간도를 뚫고

난 지금 박장을 막 관통한 것이다

눈 맞는 대밭은 딴 세상이 이 세상 같다

눈덩이를 이기지 못한 덧가지 우에

다시 눈이 사각사각 쌓이고 있다

여기가 이 세상의 끝일까

몸을 느끼지 못하겠다

내 죽음에 아무런 관دون

걸어놓지 않은 이런 순간에

어서 그것이 왔으면 좋겠다

미안하지만, 후련한 죽음이

시인 악력 : 1952년 전남 해남 출생.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입선하고 '문학과 지성'에 시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국작과 교수와 총장을 역임했다. 시집으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나는 너다' '개 눈속의 연꽃' 저술면서 빛나는 바다' 등이 있다. 제3회 김수영문학상과 제36회 현대문학상, 2006년 옥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했다.

JBT 전북타임스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창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택진로77(진북동)5층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8645-4113	군산시 010-8641-7942	부안군 010-7247-3947
증평군 010-8678-4271	남원시 010-2285-3987	임실군 010-8642-6502
인제군 010-8640-6855	익산시 010-9560-3075	고창군 010-2256-3734
제주시 010-3015-4791	김제시 010-4572-6112	진안군 010-2433-1721
송천군 010-5242-3694	정읍시 010-2800-2934	원주군 010-3672-0308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경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열린 의정, 으뜸 의회' 구현을 표방하며 쉽 없이 달려온 제9대 임실군의회가 임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준비하는 시점에 섰다.

장종민 의장을 필두로 한 제9대 후반기 의회는 지난 1년,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승화시키는데 매진했다. 임기 종료를 6개월여 앞둔 지금, 의회와 집행부를 '군민의 삶을 함께 책임지는 두 바퀴 수레'로 정의하고 달려온 제9대 의회의 2025년 성과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다짐을 조명해 본다.

(편집자주)



## 제9대 임실군의회 2025년 결산

### ‘한 걸음 더 가까이, 열린 의정, 으뜸 의회’

● 장종민 의장 “운동화 끈 조여 매고 달린 1년… 초심 잊지 않을 것”



“2025년 한 해를 마무리 하며 우리 제9대 임실군의회는 이제 임기의 마지막 6개월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군민 중심의 의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시작했던 여정이 어느덧 대단원의 막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종민 의장(사진)은 지난 1년을 회고하며 ‘현장’과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초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는 벤의 해를 맞아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길상여의(吉祥如意)’, 즉 모든 일이 길하고 군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임실을 만들기 위해 우리 의원 전원은 운동화 끈을 조여 매고 현장을 누볐다”며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자가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관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입법기관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고 밝혔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인프라 구축부터, 송전선로 건설 반대와 같은 군민의 생존권이 걸린 현안까지 격동의 시간이었다. 장 의장은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두 바퀴 수레’처럼 밤을 맞췄다”며 “수레의 두 바퀴가 나란히 굴러가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듯, 때로는 견제와 비판으로 균형을 잡고 때로는 협력과 지원으로 속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남은 6개월은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이 군민의 삶 속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결실의 시간’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 운영행정위원회: 밸로 뛰는 현장 의정, 대안 제시하는 정책 의회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김종규)는 지난 한 해, 군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 제·개정부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안·결의 활동, 그리고 전문성을 더한 연구 활동 까지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며 의회의 심장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 90여 건 안건 처리… 군민 실생활 입법 주도

운영행정위원회는 제9대 의회 전반기와 후반기를 잇는 가교로서 내실 있는 회기 운영에 집중했다. 지난 1년여간 조례안과 예산안, 동의안 등 총 90여 건에 달하는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하며 입법 기관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했다.

■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강력한 목소리’

지역의 생존권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단호했다. 위원회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시작으로 △육군 제6탄약창 토지 보상 문제 재조명 및 개발행위가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신정읍-신계통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등을 잇따라 제택하며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 약속 이행을 위한 △일진제강 임실 제2농공단지 투자협약 이행 촉구 결의

안과 △에코시티 개발이익금 정산 촉구 결의안을 주도하며 지역 이익 수호에 앞장섰다. 이들△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진상규명 및 역사적 책임 이행 촉구 건의문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국제적 정의 실현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 ‘공부하는 의회’… 연구단체 및 벤치마킹 활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로의 체질 개선도 눈에 띈다.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임실 인구유입 정책연구회 △임실 균형발전 연구회 △임실 지명바로세우기 연구회 등 3개의 의원 연구단체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실효성을 있는 정책 대안 발굴에 매진했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또한 돋보였다. 순창군 농촌유학 거주시설, 광성세계장미축제, 고창 청보리밭 축제 등 타 지역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스마트팜 선도 기업인 지티팜을 방문하는 등 임실군 실정에 맞는 관광·농업 정책 접목을 위해 현장을 누볐다.

■ 농업복지위원회: 농업의 미래 여는 실용 의정, 소외 없는 촘촘한 복지 의회

농업복지위원회(위원장 김정희)는 임실군의 근간 산업인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외되는 이웃 없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지난 1년을 온전히 쏟았다.

가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을 제택했다. 이는 관계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호소하며 지역 농업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위원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대목이다.

■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치열한 고민과 현장 행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위원회가 보여준 열정과 노력은 남달랐다. 위원회는 이 사업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라 판단, 집행부에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주문하는 한편 주민들과의 연대에도 온 힘을 쏟았다.

비록 당장의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으나, 정책의 필요성을 지역 사회에 공론화하고 현장의 절박함을 알리기 위해 주민과 함께 밸로 뛰었던 지난 과정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의정 기록으로 남았다는 평가다.

■ 연구단체 가동… 정책 전문성 강화

전문성을 갖춘 정책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연구 활동도 활발했다. 소속 의원들은 △임실 그린 연구회 △임실 지역농업발전 연구회 △임실 교통복지 연구회 △임실 사회·복지정책 연구회 등 4개의 연구단체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이를 통해 농업뿐만 아니라 환경, 교통,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심층적으로 파고들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며, 주민의 알 권리 충족시키고 일방통행식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 민·관·정 공조 체계 구축… 입체적 대응 로드맵 가동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마련에도 공을 들였다. 특위는 임실군 송전탑 대책위원회 및 관계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문가 특강을 통해 논리를 보강하는 등 치밀한 활동 계획을 모색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군정의 맥(脈) 짚은 ‘송곳 검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일윤)는 지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의 일정을 통해 군정 전반을 꼼꼼히 되짚어보며 군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진단했다. 위원회는 본청은 물론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그리고 출자·출연기관까지 감사의 범위를 넓혀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파헤쳤다.

그 결과 제택된 결과보고서에는 총 127건(시정 19건, 처리 29건, 건의 79건)에 달하는 방대한 개선사항이 담겼다. 이는 단순한 지적이나 질타에 그치지 않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합리적인 대안까지 제시한 정책 감사의 결과물이다.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는 건의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을 유도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 건전성 확보한 ‘알뜰 살림’ 설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재)는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과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했다. 위원회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원칙으로 세우고, 관행적으로 편성된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낭비성 요인을 찾아내 과감히 삭감하는 등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현미경 심사를 진행했다.

치열한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확정된 2026년도 임실군 살림 규모는 총 5,229억 원이다. 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 취약계층 보호,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군민의 피부에 와닿는 필수 사업에는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동시에 행사성 경비나 소모성 예산은 절저히 배제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예결위는 이번 예산안 확정을 통해 재정 위기 속에서도 임실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균형 잡힌 예산’을 완성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 2026년 ‘5,229억 예산 시대’… 유종의 미로 보답하겠습니다.

의회는 성과에 대한 자축보다는 혹시나 놓친 부분은 없는지, 군민의 기대를 저버린 부분은 없었는지를 먼저 되돌아보며 한 해를 출발하고 있다.

2026년도 본예산 5,229억 원이 최종 확정됐다. 예산이 임기 마지막 날까지 낭비 없이 쓰이도록, 그리고 다음 의회가 더 나은 토대 위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짐짓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각오다.

2026년 상반기는 제9대 의회의 지난 4년을 집대성하는 시기가 될 전망이다. 의회는 의장단과 의원들이 약속했던 ‘의회 방송 개설’부터 ‘읍·면·순회간담회’까지, 모든 공약 사항들을 끝까지 충족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의회와 집행부라는 두 바퀴 수레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서로의 속도를 맞추며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정진하겠다는 것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 김관영 도지사님의 임실군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영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녹여내며 ‘군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자처했다는 평가다.

■ 70여 건 안건 처리… 군민 삶을 쟁기는 ‘세심한 입법’

농업복지위원회는 군민의 생활과 직결된 조례 제·개정 등 입법 활동에 매진했다. 지난 1년간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70여 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하며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단순히 안건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복지 혜택이 군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했다.

■ 농민 생존권 사수… 건의·결의안 채택

기후 위기와 물가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는 농민들을 대변하기 위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다. 위원회는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필수농자재 국

● 초고압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주민 생존권 사수” 최선봉에 서다

초고압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희)는 한 국전력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6월, 제346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공식 출범했다. 특위는 지난 한 해 동안 임실군의 관광 자원과 청정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군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사수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현안 대응의 최전선에 섰다.

■ “밀실 행정 타파”… 투명성 확보와 강력한 견제

특위는 출범 직후부터 날카로운 비판의 날을 세웠다.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집행부의 대처를 질타하고, 단 6쪽짜리 부실한 자료로 군민을 설득하려 했던 한국전력의 기만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사업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거듭 촉구하